

大學에의 挑戰과 理念의 大學



梨花女大 總長 鄭 義 淑

I. 도전받는 대학의 현실

일찍이 대학의 오늘을 예견했던 한 사람의 사상이 있었다. 그는 바로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토마스 힐 그린(Thomas Hill Green)이었다. 「더 이상 대학은 웅장한 고성의 상아탑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은 시장의 한복판에 서서 지식을 거래하고 손님을 부르며, 그러면서도 그 어떤 것도 다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된 몸짓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의 대학관념은 불과 한 세기가 지나지 않은 오늘의 이 시점에 그대로 적용되고 말았다.

물론 그의 이러한 예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의 비극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은 대학의 현실일 수 있다. 대학의 비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대학에 대한 오랜 전통적인 관념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사실 대학은 인간의 희망이었고, 대학은 인류의 가능성이었다. 모든 사람의 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우리들 주변의 그 어떤 것들과도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장중한 건물의 위용, 엄숙한 제전의 분위기 그리고 약동하는 지성의 분출이 충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바로 이러한 관념이 대학을 상아탑의

전당으로 관념화하였으며, 일상의 일들과도 구분되는 이념의 터전으로 자리하게 했다. 즉 대학은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일을 말하기 위해서만 오늘을 눈여겨 볼 뿐이었다. 고고함은 독단적일 정도로 엄수되어야 했고 시속을 초월한 이상이 대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대학의 이러한 탈현실적이고 초현상적인 속성은 한 세대 이전만 해도 그것 자체가 오히려 대학다움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은 마침내 시장의 기능, 보다 더 엄격히 말한다면 지식 시장의 한 영역 속에 스스로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몰려들고 말았다. 너무나 많은 요구가 대학으로 몰려들어 오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시대는 대학의 고고함도 대학의 안일함도 대학의 탈속적인 성격도 모두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다.

도전받는 대학의 구체적인 성격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몇 가지만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대학은 급박한 현실에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을 요구받고 있다. 조그만 식품공장에서부터 거대한 제철공장에 이르기까지 첨단적인 기술의 한 단서를 대학이 공급해 줄 것을 급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2. 대학은 관념적인 차원의 이론가를 요구하는 성격에서 벗어나서 당장 일할 수 있는 전문

적인 기능인력의 공급처가 되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3. 대학은 현실의 기준화나 체제적인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로서의 실험장이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 기존의 사회기관이나 제도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실험적인 미래의 돌파구를 대학이 대신 마련해 줄 것을 그들은 희망하고 있다. 실험연구에서부터 점단적인 사상 활동까지도 대학이 그 위험을 부담해 줄 것을 그들은 희망하고 있다.

4. 대학은 가치의 조정기관이기를 요청받고 있다. 즉 대학은 서로 상충하는 사회를 적절히 조정하고 바람직한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처럼 오늘의 대학은 마침내 사회의 즉각적인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해야 하고 그러한 부응 자체가 그들의 요구에 미흡하는 것이라면 사회는 주저 없이 대학의 무능을 공박하고 만다. 이처럼 대학에 대한 사회의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 즉 그 하나는 대학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다른 하나는 대학은 너무나 그들의 필요와는 떨어져 있다는 비판의 태도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은 채 대학 속으로 스며 들어 오고 있다.

II. 대학의 진통과 아픔

도전받고 있는 오늘의 대학은, 그러한 도전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만 대학다운 자기 권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모든 대학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음들은 대학을 정일한 고요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충격적인 충전이 이루어지게 했다. 전통적인 대학의 모습, 즉 대학은 모든 지성의 권위적인 점유자로서 누려 왔던 직위로 복권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대학인들의 염원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것은 대학이 소수의 지적인 귀족의 양성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바쳐진 터밭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도전받고 있는 대학의 이 두 가지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적 대학과 대중적 대학의 서로 다른 차이이라 할 수 있다. 지적

창조의 능력과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선택적 소수의 에지를 다질할 수 있는 지도·핵심인물을 위한 정신적인 고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엘리트적 대학관념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은 엘리트의 독점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삶의 가치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대중적 대학관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엘리트적 대학관념과 대중적 대학관념은 서로가 어울릴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며 서로를 배격할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전받고 있는 오늘의 대학사회가 그 나름의 위치 설정과 자기발전의 의지를 위해서 반드시 결론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대학을 엘리트적 관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중적 관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떠한 관념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면서 가장 대학다운 대학으로의 자기 위치를 다질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의 가치 지향적 방향의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고고함을 대학의 본질로 주장할 수도 있다. 대학의 현실적인 참여와 사회적인 연계성을 일층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떠한 관점에서든 있든간에 이러한 관념 자체가 결코 단순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그 영향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의 대중사회는 사실,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 고전적인 것이 지니고 있었던 배타적인 권위나 독특한 가치 그리고 영광까지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클래식 음악을 제즈로 편곡함으로써 더 많은 흥취를 느끼고 있는 시대이며, 영웅을 고고함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자기 이웃 속에서 쉽사리 구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권위도 편익에 의하여 재단되어 버렸다. 대학의 위엄도 이제는 지난날의 신화로만 남아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대학의 엘리트적 관념은 그만큼 현실과 유리된 고독한 존재로 버림받고 말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대중사회가 보여 주고 있는 속성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고 가치로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부응하여 대학이 대학다움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순응적 시대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여전히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다운 고유기능에 집착하게 한다. 대중사회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가치의 설정도 대학이 맡아야 하고, 대중사회의 병리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사회적 치유자의 책임을 대학이 맡아야 한다. 대학은 더한층 엘리트적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인류의 내일을 열고 가는 책임있는 지성 사회의 기능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을 엘리트적인 것으로 인식하든 대중적인 것으로 인식하든간에 두 가지 관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학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은 비단 대중사회를 일찌기 경험했던 서구에서만만의 일도 아니고, 이제 전통사회에서 벗어나 대중사회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비서구 사회에서도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의 적절한 선택이나 해결이야말로 대학의 오늘과 내일의 지평을 함께 열어줄 수 있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Ⅲ. 지성과 기능의 일체화

대중사회에서의 대학을 우리는 어느 한 가지의 선택만으로 그 자세의 정립에 대응하지 말고 그 대신에 그것의 적절한 종합의 한 측면을 열어 보려는 시도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대학으로 하여금 엘리트적이어야 하고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의 동시적 수용을 강요한다면, 이 두 가지 성격의 이질성 때문에 대학은 상당한 혼돈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영역과 대상을 달리하여 수용한다면 문제는 그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대학의 현실적인 과제를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에드워드 실즈(Edward Shils)의 지식사회학적 발상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대학은 엘리트적이어야 하고 대중적이어야 한다. …… 엘리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학의 가

치적 측면을 의미하며, 대중적 측면에서는 그것의 구성과 인식의 성격을 의미한다. 만일 어느 한 대학이 그 나름의 가치를 부여받으려면, 엘리트적인 영역에서는 엘리트적이어야 하고, 대중적인 영역에서는 대중적이어야 하는 기능의 분화와 종합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실즈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대학의 지성적 측면과 대학의 기능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학은 여전히 가치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대학은 가치를 창조하고, 가치를 유지하며,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승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이러한 가치적 측면 즉 지성의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거대한 공장의 부속 실험실이나 또는 기술자 연수소 이상의 그 어떤 것일 수가 없게 된다. 무엇이 역사의 진실이며, 시대적 가치인가를 밝혀 주고 그것 때문에 피로와 환을 줄 아는 진리의 본체가 되는 것이 곧 지성적 대학의 의미이며 대학의 엘리트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고답적인 성격 때문에 대학의 사회적 연계성이 차단된다면 이미 대학은 많은 대학의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 대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유능한 일꾼들을 길러 주어야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 때문에 일층 삶의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대학의 기능적인 측면은 대학의 문턱을 낮게 하여 수많은 사람이 대학을 그들 삶의 한 연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대학과 자신을 하나라고 생각함으로써, 대학을 전통적인 지배세력의 독점적인 무대로 인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지배집단의 자기 합리화나 또는 지속적인 자기변명을 위한 특정 세력의 터전이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이들이 끼여 찾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삶의 더 높은 차원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을 대중의 바탕 속에 자리잡게 함으로써 그들의 대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감대를 맺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치적 측면에서 대학은 지성적이고

엘리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중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가치적 측면에서 대학이 지성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이 가치와 이념을 형성하고 창조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구도자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가 없는 대학, 학문적 이론을 설정하지 못하는 대학, 독특한 학풍과 학파를 만들 수 없는 대학은 바로 이러한 지성을 상실한 대학이며, 그것은 그만큼 자기평가를 절하하고 있는 셈이다. 흔히 대학의 기능을 연구, 교수, 봉사라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아마도 그 중에서 연구야말로 대학을 대학답게 하는 핵심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사회에 봉사하는 일만을 대학이 담당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구태여 대학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대학의 교육기능과 봉사기능이 외면되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기능은 오직 대학의 연구기능 위에서 전개될 때라야 참 대학다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학의 지성적 측면을 외면하고 있는 대중사회적 충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것을 대학이 또 다른 역사적 성격으로 상승하거나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대학다운을 잃어버리는 변용의 강요를 뜻하는 것이다. 지성적 퇴진 위의 기능적인 봉사를 다짐하는 대학이야말로 대학의 엘리트적 속성을 대중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엘리트적 성격과 대중적 수용의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오늘 대학은 더할 수 없는 충격과 도전에 고민하고 있다. 토마스 힐 그린의 예전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러한 수용이 또 다른 대학다운의 상승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대학은 도전받는 존재로부터 시급히 벗어나서 도전하는 존재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적인 충격에 지성적으로 맞서면서, 지성으로 무장된 엘리트의 대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어려운 과업을 대학이 맡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그러므로 엘리트적 성격과 대중적 성격 그리고 지성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대학본연의 연구하는 구도자적 자세에서 우선적으로 모색할 때라야 대학의 가치는 대중사회의 충격을 극복할 것이다. *